

### 55개 IT중소벤처기업 전문협의회 본격 가동

정부와 기업이 손 잡고 IT중소·벤처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설립한 55개 전문협의회(Focus Group)가 본격 가동됐다.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는 3월 16일 서울 코엑스 콘퍼런스센터에서 55개 협의회 중 하나인 '지능로봇 전문협의회'를 대상으로 벤처캐피탈 투자를 유치하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는 정통부가 'IT중소·벤처기업 활성화대책(IT SMERP)'의 일환으로 지난 2월 55개의 IT전문협의회를 출범시킨 이래 처음 치러지는 행사로, 투자자와 전문협의회 참여업체 간 '만남의 장'이어서 향후 투자 상담 실적이 주목된다.

진대제 장관은 이날 16개 벤처캐피탈(VC)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VC클럽'을 결성해 정례적으로 모임을 열기로 했다. 이 'VC클럽'은 앞으로 55개 분야별 전문협의회의 투자 유치에도 적극 참여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업 가치 재평가와 자금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보통신산업협회(회장 이기태)와 협력해 분야별 기업동향·애로현황·시장분석·기술분석 등 생태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현안을 면밀히 파악하기로 했다. 대기업과의 협력관계 개선과 공동구매 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 정통부, 벤처 SW기업 테스트베드 지원

정보통신부(장관 진대제)는 올해를 '소프트웨어(SW)산업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국내 SW산업 경쟁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정통부는 3월 14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ITT) SW시험인증센터의 오픈랩을 통해 테스트 장비·기술·인력 등 제반여건이 열악한 중소벤처 SW기업에 공통서비스 차원에서 종합적인 테스트베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W개발업체들은 제품 개발 초기부터 언제든지 독립·차단된 시험공간에서 윈도우·유닉스·리눅스 등 다양한 OS(운영체제) 플랫폼의 테스트 장비와 각종 테스트 자동화 도구를 이용, 제품의 성능·기능시험, 시스템 모니터링, DB튜닝, 웹 품질 및 트래픽 분석 등의 다양한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정통부는 이를 계기로 국산SW 품질의 획기적 개선·개발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 제품의 신뢰도 향상 및 경쟁력 강화,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코스닥, 3월 28일부터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 시행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본부장 광성신)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3월 22일 코스닥시장의 상장 기준을 완화하는 대신 퇴출요건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코스닥시장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상장 요건인 '동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 또는 절대부채비율 100% 이내'를 '동업종 평균부채비율 또는 코스닥상장기업 전체 평균부채비율의 1.5배 미만 중 큰 것'으로 바꿔 기준을 완화하였다. 이는 코스닥기업 전체 평균부채비율이 크게 낮아져 신규 상장하려는 기업들의 부채비율 기준을 완화해 주기 위한 조치이다. 또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벤처기업에 대한 특례로,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상장심사를 통과할 수 있게 했다.

반면, 자격 미달인 기업의 퇴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05 회계연도 결산을 시작으로 자기자본의 50%를 넘는 경상손실이 2년 연속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3년 연속되면 상장 폐지된다. 또 시가총액이 일정기간 10억원 미만일 경우 퇴출되던 것이 20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됐다. 사업연도 말 자본잠식 50% 이상 요건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경우 상장폐지까지 유예기간도 1년에서 6개월로 줄었고, 반기보고서 감사 의견이 '부적절', '의견거절', '범위제한 한정'으로 나오거나 반기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퇴출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세조종, 허위공시, 분식회계 등 중대한 증권범죄를 저지른 기업을 퇴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밖에 28일부터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이 현행 12%에서 15%로 확대되었으며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각 제한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특 허 청 , 특 허 정 보 활 용 전 략 세 미 나 개 최**

특허청(청장 김종갑)이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3월 24일 인하대학교 본관 중강당에서 '특허정보 활용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대학산학협력단 관계자, 경기·인천지역의 기업체 연구개발관계자 및 이공계 대학생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의 효율적인 특허관리 및 특허정보 활용을 통한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에 대하여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학의 지식재산권 관리전략(인하대 김수동 교수), 특허정보검색 방법((주)아이피폴 박용준 대표) 및 연구자들이 알아야 할 특허제도(베리타스국제특허법률사무소 이철희 대표 변리사)를 주제로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발표했다. 또한 특허청이 과학기술자들의 특허정보 활용을 돕기 위하여 발간한 <과학기술자를 위한 특허정보핸드북 교재>도 배포했다.

**중 기 청 , 기 술 혁 신 형 창 업 활 성 화 대 책 추 진**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차세대 성장 동력 등 기술 혁신형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창업 전(Pre-Startup) 단계부터 민간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시기까지 집중 지원을 하는 '기술 혁신형 창업 활성화 대책'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고부가 가치형 기술창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기술창업 패키지 1000' 과 교수·연구원의 첨단 신기술의 사업화 제고를 위한 '실험실 창업 활성화', 기술창업의 모태가 될 '창업보육센터의 성과제고' 등이 포함된다.

'기술 혁신형 창업활성화 대책'으로 향후 5년간 대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기술패키지 창업 1000개, 실험실 창업 1000개, 센터 창업 8000개 등 기술 혁신형 중소·벤처기업 1만개를 집중 육성함으로써 5만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중 기 청 , 중 소 정 책 자 금 대 출 절 차 크 게 줄 여**

중소기업청은 3월 18일 중진공, 신용보증기, 기술신용보증기금 대표들과 함께 '중소기업 정책자금 원-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중소기업들이 정책자금을 대출받는 절차를 인터넷을 활용, 단 한 차례 방문으로 모두 끝낼 수 있다. 중진공에 자금 신청을 한 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추가 방문 없이 중진공에서 바로 정책자금 대출을 받거나 기보·신보에 들르지 않고 바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다. 중기청은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중진공, 보증기관과 보증업무 전자화 시스템을 개발·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금융거래 확인서도 전자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프로세서 절차가 적용되는 정책 자금은 구조개선자금, 중소벤처창업자금, 협동화자금, 개발·특허기술 사업화자금 등 4개 자금으로 올해 약 2조 4000억원의 예산이 할당돼 있다.

**신 용 보 증 기 금 , 중 소 기 업 지 역 특 화 보 증 지 원 크 게 증 가**

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 부산·경남본부는 올 들어 최근까지 부산·경남지역에서 지역특화보증 지원을 받은 업체는 총 384개, 보증금액은 340억원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1개 업체, 137억원에 비해 금액기준으로 3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울산지역 지역특화보증 실적도 올 들어서는 24개 업체에 3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개 업체에 2억원보다 크게 증가했다. 이는 신보 부산·경남본부가 올해 지역특화보증 공급 목표를 2천억원으로 늘리는 등 지원규모를 확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특화보증제도는 신용보증기금이 지방의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해 선정한 특화산업에 대해 보증금액과 한도 등을 우대하는 제도로 부산의 경우 봉제의복과 신발, 선박, 화물자동차 운송업 등이 특화업종으로 선정돼 있다.

## 제1·2차 자금조달 및 경영·투자 유치전략 아카데미

(사)한국여성벤처협회(협회장 송혜자)는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및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중소기업청 지원으로 자금조달 및 경영·투자유치 전략에 관련된 벤처아카데미강좌를 개설·운영한다.

### 교육과정개요

- 과정명 : 제1·2차 자금조달 및 경영·투자유치전략 아카데미
- 주 최 : 중소기업청
- 주 관 : (사)한국여성벤처협회
- 교육일정 : 1차) 2005. 4. 13(수) ~ 4. 15(금), 2차) 4. 18(월) ~ 4. 20(수)
- 교육대상 : 중소·벤처기업 CEO 및 임직원(남·녀)
- 참가비 : 5만원(교재비 포함) - 1, 2차 모두 수강 시 8만원
- 계좌번호 : 기업은행 449-000311-01-099, 예금주 : (사)한국여성벤처협회
- 교육장소 : 1차)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강의실, 2차)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 신청·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www.kowwa.or.kr) 또는 팩스, 이메일 (kowwa@kowwa.or.kr) 신청
- 접수마감일 : 2005. 4. 11(월)
- 문의처 : 한국여성벤처협회 사무국 (전화 02-6009-8500~1, 팩스 02-6009-8502)

## 제7회 정보통신 벤처창업 경진대회 공고

### 개요

- 목 적 : IT분야의 창의적 벤처창업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벤처창업 분위기 조성
- 목적일적 : 예비창업자에게 효과적인 사업화 모델을 제시하고 사업계획 능력을 고양하여 벤처창업의 성공가능성 제고
- 추진기관 : 주 최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목적일적 : 주 관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 참가자격 : 대학(원)생, 교수, 연구원 및 일반인 등 예비창업자(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
- 응모분야 : 정보통신 전 분야 (멀티미디어 콘텐츠, 정보통신서비스, S/W, 기기 및 부품 등)

### 제안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및 접수기간 : 2005년 3월 28일(월) ~ 5월 10일(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1차 제안서 및 작성요령 다운 후 작성하여 인터넷 또는 우(인)편으로 접수
- 인터넷 접수 : <http://venture.kait.or.kr>
- 우(인)편 접수 : (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78-2 동아빌라트 2동 2층
- 우(인)편 접수 :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IT산업지원팀(02-580-0524)

### 선정방법 및 절차

- 방 법 : 산·학·연·벤처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창업아이템 제안서 및 사업계획서의 창의성, 기술성,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평가하여 선발
- 발 표 : 1차선발(5월), 2차선발(7월) 및 최종선발(8월) 결과는 추후 인터넷 게시 및 개별 통보



▲ 2005년 3월 18일 디지털타임즈 5면

중소기업청 김성진 청장은 정부의 벤처활성화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경기회복세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건전한 벤처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둔 중소기업정책을 착실히 수행해나간다는 포부를 밝혔음을 보도한 인터뷰 기사



▲ 2005년 3월 24일 제일경제 9면

3월 24일 정부의 벤처활성화 대책 발표 3개월째를 맞이하며 벤처업계 전반에 활기가 넘치고 있다고 전하며, 진행중인 정부지원책과 남은 과제 등을 점검해 보도한 기사

## 대전시 '바이오테크노폴리스-대덕' 선포

지난달 17일 대전바이오벤처타운 신축부지에서 '바이오테크노폴리스-대덕 선포식 및 대전바이오타운 개관식'이 열렸다. 염홍철 대전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대학 총장, 연구단지 기관장 등 3백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화려한 바이오쇼, 다양한 영상물, 셀트리를 이용한 기념의식 등으로 여는 행사와는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셀트리에 대전시가 전략적으로 세운 4대 목표 ▲최적의 기업활동도시 ▲혁신R&D 전파도시 ▲첨단의료 시범도시 ▲국제바이오 협력도시를 부착해 점등하는 기념식을 가지기도 하였다.

대전시는 오는 2015년까지 대덕밸리를 최적의 기업활동 도시, 혁신 R&D전파도시, 첨단의료 시범도시, 국제바이오 협력도시로 구축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 김혁규 대통령경제특별보좌관 KAIST서 리더십 강연

지난달 11일 오후 한국과학기술원(총장 로버트 러플린) 교내 창의학습관 터만홀에서 'KAIST 리더십 강좌'의 첫 강연자로 나선 김혁규 대통령경제특별보좌관은 "자본주의 사회의 바탕은 경제이며, 21세기 경제의 근간은 과학기술밖에 없다"며 "과학자 인센티브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이 돈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강연에서 김보좌관은 '확실한 과학자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 '현재 자신의 목표는 국무총리가 되는 것인데 총리가 되면 이를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과학자가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시한 방법들은 ▲우수과학자 1억원 인센티브 제공 ▲과학자 국립묘지 안장 ▲과학자 집에 대통령 공로패 전시 등이다. 김보좌관은 신기술을 확보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안정될 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기술개발에 주력하는 과학자가 존경받는 국민적 정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